

제9장 자살, 재앙을 부른다 3

E 티베트 사자의 서

삶과 죽음을 포괄하는 4가지 바르도

바르도는 티베트인들이 일반적으로 죽음과 다시 태어남 사이의 중간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훨씬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 있다. 티베트인들은 바르도를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가 삶, 둘째 죽어가는 과정, 셋째 죽음 이후, 넷째 환생이라는 4가지 바르도가 그것이다.

첫째, 바로 지금의 삶이라는 의미의 ‘일상적인 바르도’는 태어난 이후에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르도는 이것뿐이고, 나머지 세 가지 바르도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계이다. 둘째,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바르도’는 죽어가는 과정이 시작된 직후부터 ‘내적인 호흡’이 끝날 때까지 지속된다. 이 바르도는 죽음의 순간에 ‘근원적 광명’이라 불리는 마음의 본성이 떠오르면서 절정에 달하게 된다.

셋째, ‘다르마타’라 일컬어지는 ‘밝게 빛나는 바르도’는 마음의 본성이 밝게 빛을 내기 시작하는 죽음 이후의 모든 경험을 포함한다. ‘밝은 빛’은 소리, 색채, 빛깔을 지닌다. 넷째, ‘업에 따라 다시 생성되는 바르도’는 우리가 환생하는 순간까지 지속되는 시간을 말한다.

티베트어의 바르도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삶, 그리고 죽음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삶만 알고 있을 뿐, 죽음의 과정이라든가 죽음 이후에 대해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바르도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의 이 삶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 죽음 이후, 다시 태어나는 바르도까지 포함해 말하고 있다. 네 가지 바르도 개념에 비추어볼 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은 더 이상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티베트인들은 이처럼 삶과 죽음에 대한 확고한 생사관을 통해 죽음을 끝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을 자연스럽게, 당연히 지나가야 할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읽어주는 『티베트 사자의 서』

사자(死者)는 생명이 끊어져 영혼이 몸 밖에 나왔을 때 ‘자기가 살아있는 것인지, 죽은 것인지’ 반문하게 된다. 죽은 당사자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자는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가족과 친구들을 여전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자는 그들을 볼 수도 있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은 사자를 볼 수도 없고 사자의 말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죽은 자는 실망하게 된다. 이때 그의 귀에 대고 다음 내용의 『티베트 사자의 서』를 읽어준다.

“이제 죽음이라 불리는 것이 그대에게 찾아왔다. 그대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대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아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이 세상의 삶에 애착을 갖거나 집착하지 말라. 그대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 세상에 남겨둔 것에 아무리 집착할지라도 그대는 이제 여기에 머물 힘을 잃었다. 그대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윤회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헤매는 것밖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그러니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마라. 다만 진리, 진리를 깨달은 자, 그를 따르는 구도자들을 기억하라.

그대의 마음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이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아! 고귀하게 태어난 자여, 지난 사흘 반 동안 그대는 기절상태에 있었다. 기절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대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생각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사후세계에 있다. 지금 그대의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모두 빛의 몸을 하고 있고 천신들의 형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1)

티베트의 바르도 가르침은 우리가 미리 죽음을 준비할 때 일어나는 것과,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을 때 닥치는 것의 차이를 명확하게 제시해준다. 만일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지금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을 통해, 죽은 그 순간에, 그리고 죽은 이후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바로 지금 이 삶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금의 삶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삶은 황폐해지고 우리는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우리 자신, 바로 그 상태에 갇혀버리고 만다. 이러한 무지로 인해 우리는 끝없는 환상의 나락, 생사의 끝없는 순환, 붓다가 윤회라고 일컬은 고통의 바다에 떨어지게 된다.

죽음,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성취의 순간

그러나 바르도 가르침의 근본 메시지는 우리가 죽음을 제대로 준비한다면 삶과 죽음 모두에 커다란 희망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해준다. 바르도 가르침은 우리에게 지금

1) <티베트사자의 서>

살고 있는 이곳에서 놀랍고도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그런 자유는 우리의 준비 여하에 따라 우리 자신의 것이 될 수도 있다. 죽음도 선택할 수 있고 삶 역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죽음을 준비하고 수행을 닦은 사람에게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성취의 순간이다. 2)

달라이 라마도 “죽음이란 육신의 옷을 벗는 행위”고 말한다.3) 티베트어로 육신은 ‘뤼’라고 불리는데 수하물처럼 사람이 떠난 뒤에 남는 것을 의미한다. ‘뤼’라고 말할 때마다 티베트인들은 인간이란 이 삶과 육신에 잠시 머무는 여행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게 된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의식이 육신을 떠나는 죽음의 순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대는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그대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 세상에 남겨둔 것에 아무리 집착할지라도 그대는 이제 여기에 머물 힘을 잃었다. 그대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윤회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해매는 것밖에 아무 것도 얻을 게 없다. 그대의 마음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 이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지난 사흘 반 동안 그대는 기절상태에 있었다. 기절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대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생각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사후세계에 있다.” 4)

조장체험 가족(아버지 취권자 31세, 아들 립씨자 7세, 아내 츠끼겍 21세, 조카 칩빠 21세)

티베트 특유의 자연환경과 죽음이해가 잘 드러나 있는 현상이 바로 천장(天葬)이다. 사람이 죽고 영혼이 시신에서 분리되면, 시신을 메고 독수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천장터로 간다. 천장사가 시신을 해체하면 독수리들이 몰려들어 시신을 먹는다. 뼈가 남으면 빵아서 보리가루에 묻혀 다시 독수리에게 준다. 티베트에는 나무를 구하기 힘들어 화장은 생각하기 어렵다. 고산지대라 산소가 희박해 매장을 하면 시신이 썩지 않으므로, 매장도 불가능하다. 천장은 티베트의 자연환경과 죽음이해에 알맞은 시신처리방식이다. 또 티베트인들은 살아 생전에 먹거리가 부족해서 야크라는 짐승의 고기를 먹었으므로, 죽으면 천장을 통해 시신을 짐승에게 보시하는 것이다.

어느 날 라싸 인근 삼예사 조장터를 방문했더니, 청해성에서 3일 동안 버스를 타고 그곳을 찾은 30대 아빠, 엄마, 조카, 5살짜리 아들 일행을 만났다. 그들은 천장터에 순서대로 잠깐씩 누웠다. 왜 천장터에 누워보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죽으면 그곳에 누워 조장을 지낼

2) <마지막 선물> 136-140쪽

3) Sogyal Rinpoche, The Tibetan Book of Living and Dying. Harper Collins, 1996 ; ix

4) 류시화 역 <티베트사자의 서> (서울 : 정신세계사, 1995년) 245-247쪽

것이라고 했다. 천장을 지내는 것은 우리의 명예라고 티베트인은 아무 거리낌 없이 답한다. 천장터 순례를 통해 죽음준비와 함께, 삶을 제대로 영위하라는 가르침을 되새기는 삶의 준비를 티베트인은 배우고 있다.

질문 : 어디서 왔는가?

답변 : 청해성 압도 지역에서 왔다.

질문 : 가족소개를 해 달라

답변 : 조카와 아내 아들과 나

질문 : 어떻게 왔는가?

답변 : 삼예산 천정터를 순례하기 위해 4일 동안 버스를 타고 왔다.

질문 : 이곳 방문 목적은 무엇인가?

답변 : 천장터를 순례하고 기도를 드리러 왔다.

질문 : 무엇을 기도드리러 왔는가?

답변 : 삼예사 사원에 모셔져 있는 쯡카과(달라이라마의 스승)에게 기도드리러 왔다.

질문 : 천장터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눕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 : 우리가 죽으면 천장터에서 시신을 장례지내는 것이 티베트인 모두의 소망이다. 나중에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서 섰을 때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천장터를 방문해 죽음을 미리 연습한 것이다. 아이한테도 똑같이 죽음연습을 시켰다. 죽음은 어른 뿐 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똑같이 찾아오는 게 아닌가.

질문 : 죽은 것이 두렵지 않은가?

답변 :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죽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질문 : 자살하고 싶었던 적이 있는가?

답변 : 살기 힘들다고 해도, 자살을 생각본 적이 한 번도 없다. 5)

따라서 현대의 생사학과 최면치료, 임사체험, 그리고 <티베트사자의 서>, 기독교와 불교의 가르침은 똑같이 생명이 육체로부터 벗어남으로 임종순간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생명은 일정 기간 동안 육체에 머물다가, 임종의 시간을 맞으면 육체로부터 생명은 저 하늘로 나비처럼 날아오르는 것이다.⁶⁾ 서양에서 생사학을 창시한 퀴블러 로스 박사는 어린아이들에게 죽음을 설명할 때

5) 위성방송 MBC넷 '자살, 한국사회를 말하다' 2부작 2011. 6. 21.

6) 영혼과 같은 보이지 않는 현상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호스피스에게는 엄연히 존재하는 현상이다. 건강할 때는 움직이는 몸,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전부로 착각했다라도 막상 임종과정이 시작되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려 하는 시점이 되면 서로 다른 두 세계가 함께 보이게 된다. 그리고 손이 빠져나간 장갑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듯이 영혼이 빠져나간 몸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몸을 '시신'이

자주 나비의 유충인 번데기 모양의 인형을 사용한다. 번데기 모양의 인형은 그가 직접 만든 것이다. 번데기의 배에 달린 지퍼를 열자 그 속에서 예쁜 나비 인형이 나온다. 그는 소아암 등으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어린아이를 향하여 말한다. “여러분의 몸은 형겅으로 만든 번데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죽음에 의해 여러분의 영혼은 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 저 나비처럼 예쁘게 날아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쉽게 설명함으로써 어린아이를 안심시킨다. 그도 몇 년 전 우주로 여행을 떠난다고 말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죽었다.⁷⁾

자살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자살한 사람의 증언을 들을 수는 없을까. 자살자의 증언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눈으로 직접 자살자를 만나거나 그들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는 없고 과학이나 의학을 통한 접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통로를 찾아보면 없지는 않다. :

- 1 불교의 천도제와 구병시식(救病施食)
- 2 기독교의 퇴마의식
- 3 무당의 퇴마의식
- 4 현대의학의 최면치료

1번과 2번은 종교의식이고, 3번은 민간신앙의 방식이고, 4번은 현대 정신의학의 치료방법이다. 기독교⁸⁾, 불교, 샤머니즘의 방식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최면치료는 역사는 짧지만 수십 년 전부터 미국의 정신과 교과서에 수록되어 이미 공인된 치료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새로운 치료기법들 중에서도 미국의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엄선한 ‘연구를 장려할 만한 새로운 치료법들’ 중 한 가지로 자리 잡고 있다.⁹⁾ 여기서는 무속, 최면치료, 불교의 천도제와 구병시식, 그리고 티베트 관련 자료 순

라 부르면서 수의를 입혀 장례를 치르게 된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과정은 대단히 신비롭다. 사람이 임종할 때가 되면 몸이 서서히 기능을 정지하면서 체인-스톡 호흡(Cheyne-Stoke breathing, 과호흡과 무호흡을 반복하는 것)을 하다가 때가 되면 코로 긴 한숨을 쉬듯이 숨이 빠져나가 버린다. 코로 들어간 생기가 코로 나가는 모습을 목도하노라면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한다. 호스피스 간호사는 임종 당사자가 마지막 순간 다른 세상의 존재를 보는 모습을 이렇게 말한다. “임종 2, 3일 전이 되면 대화중에도 갑자기 허공 쪽으로 시선을 돌려요. 그리고 그쪽에 관심을 주다가 다시 대화하는 상황으로 돌아와요. 그동안은 제가 했던 말도 듣지 못합니다. 제가 ‘무얼 하셨어요?’ 하고 물으면 누가 와 있다거나 누구를 보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지요. 천사나 죽은 사람,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오진탁 <마지막 선물> 121-122쪽

- 7) 오진탁 <마지막 선물> 141쪽
- 8) 미국의 Bob Larson 목사는 30여 년간 90여개 국에서 퇴마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 9) 정신과 의사로 최면치료 전문가 김영우 박사는 최면치료 기법은 단순한 듯 하면서도 무척 복잡하다면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최면 유도 기술을 배워 정신치료를 활용하려했던 정신과 의사들도 실제 최면치료 과정이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감과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렇게 말한다. “텔레비전에 출연해 최면기술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환자의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치료 전문가’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하지만, 인상적인 최면시범 장면을 본 시청자들은 최면기술이 곧 문제해결능력이라고 오

서로 다루고자 한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연스럽게 임종한 삶과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삶의 죽음 이후가 과연 차이가 나는지 여부이다. 다양한 자료를 조사한 결과 현격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무속인의 증언, 최면치료 사례, 불교의 구병시식 자료를 통해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A 무속인, 자살자 영혼을 부른다

먼저 무속 관련 자료를 살펴보자. 연극인 박명환씨는 어머니가 40여년 전 3살 때 자살했다. 어머니 자살로 어머니 친절과 시댁 모두 몰락했다. 아버지는 사업이 실패했다. 친척들이 모두 다 아픔을 지니고 살았다. 죽음 이후에도 어머니는 아들 곁을 떠나지 못했다. 5, 6살 때 다른 아이들이 뛰어놀 때 그는 항상 비켜서있기만 했다. 왜 그런지 몰랐지만 비만 오면 슬펐다. 고교 1년 때 어머니 자살소식을 들었다. 아버지의 외도로 어머니가 환갑에 약을 먹었다. 호적등본을 우연히 보니, 어머니 이름에 빨간금이 칠해져있었다. 또 고모에게 어머니 소식 전해 듣고 억장이 무너지고, 인생이 뒤집혔다. 그는 가출을 결심해 학교를 자퇴했고 소년원에 수감되기도 했다.

18세에 도선사로 출가했지만, 절에서 받아주지 않았다. 집에서 허락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는 4달간 요사채에서 생활하면서 자살시도를 두 번했다. 19살에서 24세까지 마약, 밀수, 사기도박, 폭력배 폭행 등 밀바닥 인생을 살았다. 21살 때 친구 총각무당 손병수가 말했다. “어머니가 어깨에 붙어있다. 이것 풀어야 한다.” 2000년 44살 때 그는 결혼하고 생활이 안정되었다. 2001년 아내의 권유로 그는 아내와 친한 무속인을 통해 어머니 영혼을 관악산 굿당에서 초혼했다. 무속인 통해 어머니 영혼이 말씀했다. “나 때문에 고생시켜 미안하다. 연극하는 아들 따라 외국까지 따라다녔다. 앞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부부 잘 살게 해주겠다” 어머니 영혼과의 만남 이후, 그의 마음이 편해졌다. 그는 평소에도 어머니를 향해 좋은 곳에 가시라고 기도하면서 지낸다.

무속은 우리 민족과 역사를 함께 하는 우리의 민간신앙으로, 무속인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에서 불교와 유교가 수입되면서 무속신앙은 변방으로 밀려났다. 해방 이후 서양 기독교의 유입 이후 더 외곽으로 쫓겨났다. 중국은 도교, 일본은 신도의 틀에

해하기가 쉽다.....단순해 보이는 병적 증상들이 얼마나 복잡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최면시술자는 별 생각 없이 혹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초보적인 최면암시만 되풀이하며 환자를 치료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다... ..결국 최면 시술자를 고소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본 일이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최면시술을 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환자에게 서투른 최면치료를 시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편리함을 내세우며 상업적인 목적 위주로 최면치료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최면치료는.....다양한 정신치료 기법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기법에 속한다." 김영우 <영혼의 최면치료> (나무심는사람, 2002년) 32-35쪽

서 고유의 민간신앙을 계승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무속은 폄박과 무시,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죽음을 제일 잘 이해하는 집단은 종교인도 아니고 신경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바로 무속인이다. 무속에서는 삶의 공간과 함께 죽음의 공간을 말하고 있다. 무속인들은 죽은 영혼과 소통하고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무속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이어져 내려온 것은 그만큼 우리 민족과 뿌리가 같기 때문이 아닐까. 또 우리 사회에서 독자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는 많은 무속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할 것이다.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무속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는데, 그런 행위는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것이나 다름없다. "고등종교와 하등종교 구분이 의미없다."는 원로 종교학자 정진홍 교수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강릉 단오제도 무속신앙을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무속 이외에도 고유의 민간신앙과 민족문화를 소홀히 다루는 예가 적지 않다.

무속인을 통해 자살자 영혼을 한번 초혼해 촬영하기로 했다. 방송국에서 무속인 서은희씨에게 연락했더니, 마침 그도 자살자 영혼을 위한 천도재를 준비하는 중이어서 곧바로 촬영 스케줄을 잡을 수 있었다. 서은희씨를 만나러 PD, 카메라맨과 함께 북한산 굿당에 갔다. 그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다.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학생이 상담원에게 사후세계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죽으면 끝이니까, 마음이 편해진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학생은 집 근처 아파트 13층에 올라서 곧바로 투신자살했다. 상담원들이 죽음을 공부했으면 하고 죽음을 모르면서 자살예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질문 : 죽은 사람들이 저승을 가지 못하고 구천에 떠도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이 많아서 그렇다. 갑자기 죽으면 내가 죽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산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을 한다. 살아있을 때처럼 내 집에도 갔다가 학교도 간다. 직장에 다녔던 사람은 직장도 가고 하는 식으로 삶의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질문 : 빙의란 어떤 것인지?
죽은 영혼이 자기와 비슷한 기운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 사람의 몸에 자꾸 들어가게 된다.

질문 : 자살한 사람은 사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른 세상으로 떠나지 못해 저승을 못 간다. 이승과 저승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승의 생활은 따로 있다. 자살하신 분들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허공을 떠돌아 다니게 된다. 또 자신이 자살에 했다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한다. 만약에 자살을 했다면 죽어서도 계속해서 그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자살을 한 것이다. 자기 명까

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벌점(罰點)이 굉장히 크다. 그 사람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고, 사후세계에 편안히 머물 수도 없다. 그래서 인간세계에 배회하면서 산사람에게 해를 많이 끼치게 된다. 자기가 저승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가정에 계속 머물게 된다. 주변 사람은 죽은 자와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불행하게 죽음을 맞게 한다. 그래서 자살자 집안은 계속해서 자살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자살자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한 채 살아있는 사람 주위를 맴돌면서 또 다른 불행이 반복되는 것이다.

질문 :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면?

무속은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를 연결해주는데, 요새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모른다. 무속인은 죽음 영혼들과 자주 만나게 되는데, 죽은 영혼들이 살아있을 때 죽음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렇게 불행하게 삶을 마감하지도, 죽음 이후 불행한 상황에 처하지도 않을 것이다. 10) 우리 사회 자살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서은희씨는 무엇보다도 가족과의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 조상에 대한 예를 깎듯이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요즘 어린 학생이나 아이들은 내 조상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다. 부모로써 이러한 것들을 잘 가르치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면 이런 상황을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자살자의 영혼이 무속인에게 실렸다 : 무당을 통해 자살자 영혼이 말한다

자기 남편과 갈등 때문에 여자가 20여 년 전 강원도 동해에서 불행하게 삶을 마감했다.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펴 화가 나서 남편을 겁을 주기위해 약을 먹고 자살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하면서 하루 이틀 살아온 세월이 억수 같건만 누가 이 망자의 설움을 알아주나. 서러운 마음을 알아준다고 남편이 나를 찾을까 자신이 찾을까. 한마음이 세월이구만 죄지는 게 너무 많아 이승 가나 저승 가나 저승가면 이승 가나 문전 앞에서 내동댕이친 풀이 되었으니 어이 가라고(울음)... 나를 알아 달라고 여기 가서 매달리고 내 자식 사는 것도 가련하고, 내 서방 사는 것도 불쌍하고, 내가 너무 모진 마음 가지고 (울음)”

언니 : “울지 말고 좋은 데 가서 잘 살아라.”

망자 : “날 찾아줘서 고맙다고 우리 새끼 좀 찾아달라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내 새끼 좀 찾아봐줘요, 불쌍한 내 새끼.”

언니 : “자식, 신랑 다 털어버리고 좋은 데 가라, 우리한테 맴돌지 말고 조카한테도 맴돌지 말고 좋은 데로 가라. 恨 같은 것 담지 말고 좋은 데 가라.”

망자 : “나도 살고 싶어. 나도 돈 많이 벌어서 땡땡거리고 살고 싶고 다른 형제들에게 힘주고 살고 싶다.” 11)

10) 위성방송 MBC넷 '자살, 한국사회를 말하다' 2부작 2011. 6. 21.

언니에게 동생의 영혼이 실린다

영혼 : “나쁜 놈, 개놈의 새끼야!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어우 어떻게 나.....서럽지. 나쁜 놈, 아우 나쁜 놈아, 니가 그러면 안 되지. (가슴을 치며) 나쁜 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지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어찌면 좋을까. 아이고 억울해, 억울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당이 망자를 위해 준비한 새 옷을 집어 들고 망자의 영혼에게 전해준다.

영혼 : “아이고 고마워라. 내 옷도 줘라. 고맙다. 나쁜 놈, 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혼내 줄 거야. 나쁜 놈, 내가 혼내줄라고 했던 것이 내가 죽어버렸어. 내가 바보야.”

무당 : “왜 그런 모진 마음을 가졌어요?”

영혼 : “내가 혼내 줄려고 했는데, 내가 바보지.”

무당 : “자, 이제 하늘로 날아가세요.” 12)

자살자 영혼을 몸에 실었던 언니 인터뷰

질문 : 동생 혼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땠나?

답변 : (동생 영혼이 들어오게 되면) 나뭇가지를 잡은 손이 무겁다.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 간다. 죽은 동생이 저승을 가지 못하고 떠돌다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도 아프다.

질문 : 동생이 자살을 후회하는 것 같던데?

답변 : 일반 농약이면 살았는데 제초제를 입에 넣었다가 뱉었지만, 그대로 죽었다. 신랑 혼내주려고 했는데 영원히 가버렸다. 이렇게 쇼를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죽어서 내가 바보다, 바보천치! 울컥하는 마음에 신랑 혼내주려고 했는데 진짜 자기가 죽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신랑 한번 혼내주려고 하다고 실수로 죽은 것이다. 그래서 바보 천치라고 했던 것이다.

질문 : 동생의 자살로 집에 어떤 나쁜 일들이 있었는지?

11) 위성방송 MBC넷 '자살, 한국사회를 말하다' 2부작 2011. 6. 21.

12) 위성방송 MBC넷 '자살, 한국사회를 말하다' 2부작 2011. 6. 21.

답변 : 오토바이 사고, 교통사고 교도소에 간 사건도 있었고, 죽은 사람도 있는 등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

질문 : 동생 영혼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땠는지?

답변 : 눈이 감기고 팔에 힘이 들어간다.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갈 때가 있다. 영혼 스스로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손을 탁 치는 수가 있다.

질문 : 동생 영혼이 나갔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가?

답변 : 시원하다. 개운하다. 혼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시원해진다.

질문 : 아까 여러 번 고맙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답변 : 나를 찾아줘서 고맙다. 옷도 해줬지, 음식도 해줬지 음식을 먹고 싶었는데 우느라고 먹을 시간이 없었지만 사과를 먹었다. 음식을 보니 저절로 눈물이 난다. 나를 위해서 배려 해줘서 눈물이 더 났다. 그래서 고맙다고 말한 것이다. 13)

무속인 서은희 인터뷰

자살자 영혼을 자기 몸에 실어보았던 무속인에게 굿이 끝난 다음 다시 질문을 던졌다.

질문 : 마지막에 망자가 옷을 받고 춤을 추던데 어떤 의미인지?

답변 : 자신을 알아줘서 고맙고, 좋은 길을 갈 수 있어서 좋고, 자살해서 서럽지만 기쁜 마음이 생긴 것이다.

질문 : 자살자의 고통을 잘 보여주던데 느낌을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답변 : 돌아가신 분의 마음이 아픈 것, 저승을 가지 못하고 한이 맺혀서 이승에 맴돈다는 것이 가슴에 와 닿았다.

질문 : 자살자가 저승을 가지 못하고 맴돌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지 않은가?

답변 : 안타깝다. 형제나 자손들이 맴도는 것을 몰라 줄때 마음이 아프다.

질문 : 아무 대비 없이 죽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구천에서 맴도는데 이런 것을 지켜 보면

13) 위성방송 MBC넷 '자살, 한국사회를 말하다' 2부작 2011. 6. 21.

서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나?

답변 : 죽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옳은 마음을 가지고 밝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지 저승에 가더라도 행복하게 된다.

질문 : 자살한 사람에게 자살이 해결책인가?

답변 : 절대 아니다. 자살은 현실 고통의 도피구가 될 수 없다. 자살은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죽어서라도 자살이란 어리석은 행위의 인과를 받아야 한다.